

KIA, 7년 만의 KS... '야구도시 광주' 들썩

오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전통의 라이벌 삼성과 '달빛 더비' 압도적 전력으로 V12 달성 예고

'전통의 라이벌'인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가 31년 만에 한국시리즈 왕좌를 놓고 격돌한다. <관련기사 3·18면>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가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개막한다.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하면서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KIA는 앞서 차분하게 훈련을 하면서 상대를 기다려왔다.

그리고 지난 1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준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삼성이 강민호의 결승 솔로포를 앞세워 1-0 승리를 거두고, 한국시리즈 진출을 확정했다.

삼성 한국시리즈가 확정되면서 31년 만에 '달빛 더비'가 펼쳐지게 됐다.

11번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KIA는 전신 해태 시절인 1993년 삼성을 상대로 7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앞서 1986년과 1987년에도 '호랑이와 사자'가 한국시리즈 무대를 장식했다. 결과는 모두 호랑이의 승리였다.

KIA는 처음 삼성과 격돌한 1986년 한국시리즈에서 4승 1패로 승자가 됐고, 다음 해에도 다시 한번 우승컵을 놓고 맞대결을 벌였다. KIA는 1987년에는 4연승으로 우승을 확정했다.

1993년 한국시리즈에서는 KIA가 1승 1무 2패의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우승 삼패인을 터트렸다.

'슈퍼루키' 이종범이 첫 한국시리즈에서도 특급 활약을 펼쳤다. 이종범은 타율 0.310 4타점 7도루의 활약을 더해 첫 한국시리즈에서 MVP를 차지했다.

KIA는 2017년 가을에 이어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한다. 올 시즌 '호랑이 영당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2위 강세를 이어간 KIA는 9경기 차 1위로 정규시즌 우승팀이 됐다.

호시탐탐 KIA 자리를 노렸던 삼성도 '2위 짐승'에 올랐다. KIA는 올 시즌 삼성을 상대로 12승 4패의 우위를 점했다.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 대구에서 올 시즌 명승부로 꼽을 승부도 연달아 펼쳤다.

8월 31일 경기에서 7개의 홈런을 주고받으면서 숨 막히는 역전과 재역전의 승부를 펼친 끝에 KIA는 15-13 승리를 거뒀다. 9월 1일에도 0-5를 6-5로 뒤집으면서 KIA는 중요했던 기싸움에서 승자가 됐고, 우승 행보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한국시리즈에서 다시 만나게 된 두 팀은 20일 미디어데이를 통해서 '기싸움'을 전개했다.

부상에서 돌아온 제임스 네일을 마운드 전면에 내세운 KIA는 올 시즌 슈퍼스타로 떠오른 김도영



"5차전에서 끝낸다" 2024 KBO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가 20일 광주 동구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KIA 타이거즈 김도영, 양현종, 이범호 감독, 삼성 라이온즈 박진만 감독, 강민호, 김영웅이 시리즈 예상 경기 수를 손으로 표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을 중심으로 화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최형우도 두 팀이 주목하는 선수다. 삼성 양준혁 시절의 주역이기도 한 최형우는 2017시즌에 이어 8번째 한국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의 '키'로 꼽히는 강민호가 가장 경계한 선수도 바로 최형우다.

'홈런 1위팀' 삼성의 한방과 견고한 수비가 KIA 우승의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삼성은 안방에서 진행된 플레이오프 1·2차전에서도 홈런 1위 팀의 면모를 보이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홈런 1위 삼성에 맞서는 KIA는 타율 1위 팀이다. 막강 타선에 장현식-전상현-정해영으로 이어지는 특급 불펜진까지 투타의 밸런스가 돋보이면서 많은 전문가가 KIA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기대감 속에서 7년 만의 가을 잔치가 열리게 되면서 광주는 이미 축제 분위기다.

'10번 타자'들의 한국시리즈 체비도 끝났다. 지난 1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자체 연습경기가 끝난 뒤 전개된 훈련에서 경기장을 찾은 1만 5012명은 서한국 응원단장의 지휘 아래 응원전을 진행했다.

올 시즌 125만 9249명이 다녀간 챔피언스필드 관중석은 한국시리즈 내내 뜨겁게 달아올 것으로 보인다.

KIA는 대구 원정경기로 진행되는 3·4차전에도 챔피언스필드를 개방해 응원전을 펼친다.

이번 응원전은 원정 경기를 찾지 못하는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선수들에게 힘을 더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팬들은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KIA 경기를 보면서 치어리더와 함께 뜨거운 응원을 하면서 '가을 잔치'를 즐길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KIA 팬들, 한국시리즈 '티켓 전쟁'

한국시리즈 경기 티켓을 구하기 위해 광주 팬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20일 오후 2시 30분께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동구 충장로 1가 한 PC방에는 30여명의 손님들이 한국시리즈 예매 창을 띄워두고 있었다. KIA타이거즈 유니폼을 챙겨입고 티켓 예매에 나선 팬도 있었다.

한국시리즈 티켓 예매를 위해 아들과 함께 PC방을 찾은 김지희(여·43)씨는 "1차 예매 때 대기 인원이 3만명이 넘어 실패하고, 2차 예매는 컴퓨터 성능이 더 좋은 PC방을 찾았지만 역시 몇 초만에 대기 인원이 1만명을 넘었다"며 "오랜만에 광주에서 하는 경기라 경기장에 가고 싶었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입체현(여·28)씨 역시 "올해 KIA가 잘해서 경기 티켓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원래 매년 자주 가는 편인데 올해는 한번밖에 못갔다"며 "한국시리즈는 꼭 현장에서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양도 티켓 같은 거라도 찾아볼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시리즈 티켓 예매가 끝나자마자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한국시리즈 티켓 구해요", "한국시리즈 2연석 비싸게 샀다"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좌석당 9~15만원에 양도하겠다는 판매글도 속속 올라왔다. 정가 4만5000원인 K8 좌석이 2배가 넘는 10만원에 올라오는 등 정가의 2~5배가량 비쌌지만 빠르게 판매 완료됐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유류세 인하 연장될 듯 이번주 결정...3년 째 이어져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무기가 실리고 있다. 확정되면 12번째 연장이다.

인플레이션이 1%대까지 떨어진 데다 세수감(減) 부담까지 고려할 때 유류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국제유가가 다시 들쭉날쭉 조짐을 보이는 데다 민생에 미칠 충격파도 고려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인하율(휘발유 20%·경유 30%)을 부분 환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주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폭 적용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이번 주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게 된다.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차례 연장되면서 3년째 이어졌다.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25%·경유 37%의 인하율을 적용하다가, 지난 7-8월 두 달간 휘발유 20%·경유 30%로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 9-10월에는 이런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유류세 정상화'의 여건이 무르익은 상황이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앉으면서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펀크'가 현실화한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주 기름값이 12주 만에 상승 전환하기는 했지만,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도 리터(L)당 1600원을 밑돌고 있다. 다만 정책당국은 전면적인 종료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이때문에 휘발유 기준으로 5%포인트 가량 인하폭(20-15%)을 축소하는 선에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값은 리터당 40원 정도 오르게 된다. 현재 휘발유는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남뉴스

광주법원, 5·18 위자료 증액 판결 잇따라 ▶6면

경제사 - 신용진 한국광기술원장 ▶9면

호남의 누정 원림 - 나주 벽류정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백운광장 별빛 야시장

운영 시간 : 매주 금, 토요일 18:00 ~ 23:00

야시장 위치
남구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가득!!

광주광역시 남구
GWANGJU NAMGU 남구

천재지변 등 주최 측 사정으로 인해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